

진안 고로쇠 맛보러 오세요

내일 운장산 고로쇠축제 추천면 삼거광장서 열려

제1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12~13일 양일간 진안군 추천면 대불리 운일안1일암 인근 삼거광장에서 열린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100세 인생, 진안 고로쇠 먹고 건강하게!'이다.

축제기간 행사장을 찾으면 해발 600m 이상 청정 진안고원에서 채취하고 정제한 고로쇠를 1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12일 오전 11시 추천사당풍물회의 열림길 풍물놀이와 축제의 성공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로쇠 증산기원제를 통해 시작된다.

이어 주자전이 보이는 진안고원길 산책로를 따라 왕복 2km를 걷는 건강

걷기대회가 펼쳐지며 걷기에 참여한 사람 중 선착순 100명은 고로쇠 수액 0.5리터를 받을 수 있다.

개막식은 오후 2시에 간단한 기념식 후 고로쇠 수액으로 지은 밥과 진안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군, 친환경농업 발전 워크숍

무주군은 10일 무주읍 농민농업 농민마당에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군의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농업 관련 공무원들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군의 친환경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사례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농업전략연구원 김윤태 박사로부터 "친환경농업이 가야할 길"에 대한 특강을 듣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 박사는 국내 친환경농업 현황과 여건 및 전망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생산기반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황 군수는 "오늘이 자리가 우리 군 농업 현실을 직시하고 농정 방향을

공유하는 계기 농산물 수입개방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살아 숨 쉬는 깨끗한 환경을 기반으로 반딧불 농축산물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군의 친환경 인증 농가와 면적은 405농가 305.1ha로 유기농 11농가, 무농약 392농가로 집계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비용과 친환경 직불금,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부직포, 친환경 자가제조기, 우렁이 농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친환경 관련 분야 13개 사업에 39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특히 GAP(우수 농산물 관리)인증 확대를 위한 GAP 주산단지 지원 사업(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 등 지원)이 눈에 띈다. GAP 인증은 지난해 말 폐지된 저농약 인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군민 헬스교실 운영

장수군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내 헬스장 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해 군민헬스교실을 운영한다.

군민헬스교실은 14일부터 장수한누리점당(수, 목)과 장계국민체육센터(월, 화)에서 헬스장 이용시간이 많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전문 헬스강사로부터 헬스기구를 활용한 유산소운동, 근력강화운동 등 체계적인 헬스 지도가 실시돼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장수한누리점당과 장계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런닝머신 등 26종 36개의 헬스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5만 1천여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한 장수 지역의 대표적 공공체육시설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 삼례딸기 '맛도 보고 체험도 하고'

25~27일 축제 개최 문화체험행사 다채

제18회 완주 삼례딸기 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올해 완주 삼례딸기대축제는 삼례문화예술촌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열리며, 완주 삼례 딸기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풍물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식품 만들기 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의 미술관, 책 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등 고유의 문화체험을 비롯하여,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MBC 특집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딸기 딱기 대회 연인까지 딸기 빨리 먹기, 딸기 즉석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락가 판매도 진행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

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 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맛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딸기 우량묘주 생산·공급, 국내 우량품종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고설재배 지원, 친환경 웰빙 딸기 생산을 위한 미생물 공급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은 10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디지털 무주문화대전 편찬에 관한 연구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무주문화대전' 편찬한다

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 협약 체결

무주군은 10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과 디지털 무주문화대전 편찬에 관한 연구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정수 군수(무주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무주군 지편찬위원회 위원,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디지털 무주문화대전에 수록할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 분석, 정리를 위한 협업, 진행 과정에 대한 공유, 그리고 콘텐츠 관리 및 배포, 웹 사이트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확인했다.

황 군수는 "무주대백 600권을 지나

는 시점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디지털 무주문화대전을 편찬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무주의 뿌리를 공고히 한다는 마음으로, 또 무주의 과거와 현재를 집대성해 무공무진 무주를 완성해나가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가자"고 강조했다.

디지털 무주문화대전은 기존의 무주군지를 개정·증보해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군 전통문화의 원형은 물론, 각 분야별 변화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담아 지역 문화진흥 및 관광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발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 전문판매장 마이산 남부진입로 '등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기대

마이산에 진안홍삼 전문 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진안군은 10일 마이산 남부진입로에 진안홍삼 전문 판매장을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장은 마이산 남부 관광객 휴게소를 리모델링해 진안홍삼 및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홍보하면서 판매를 한다.

홍삼헌방 플러스터 사업단 직영으로



운영되며 진안홍삼 명인·명품, 군수 품질인증품, 홍삼연구소 기술이전품, 특이품 등이 준비되어 있다.

과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진안홍삼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매장 개장은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선 6기 진안군 공약사업인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무주경찰, 치안성과 향상보고회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10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과장 계·팀장, 파출소장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치안종합성과평가 향상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16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향상을 위해 기능별로 치안민족도 및 정책과제의 지표산시, 평가방법, 전년도 대비 미흡한 점을 정밀 분석하여 향상 추진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4대 사회와 근절 및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112처리, 교통사고조사, 수사 분야 등 치안고객만족도와 전반적 안전도, 범죄안전, 교통사고안전, 범죄사건수 등 체계 안전도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한도연 서장은 "모든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중심의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기자

